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4.10원 하락한 1,289.60원에 마감

29일 환율은 전일대비 4.10원 하락한 1,289.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5.70원 하락한 1,288.00원에 개장했다. 간밤 연준 위원 발언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저가 매수를 소화하며 낙폭을 축소했다. 오후장에서 환율은 1,280원대 후반에서 주로 움직임을 보였다. 장 후반 한 때 1,292원 부근까지 상승했으나 1,289.6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6.1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76.91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88.00	1292.20	1286.10	1289.60	1289.0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877.18	879.93	868.64	875.47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21.44	1423.84	1405.76	1414.9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	-5.22	-12.51	-26.22
결제환율(수입)	0	-4.25	-10.98	-23.34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약달러 진정에...1,290원대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89.60) 대비 1.85원 상승한 1,289.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유로화 상승 흐름이 약화됨에 따른 약달러 진정 및 위험선호 심리 둔화 영향을 받아 상승이 예상된다. 유로화는 스페인, 독일 디스 인플레이션에 최근 상승세가 약화되면서 하락했다. 스페인 1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4% 하락하며 예상(+0.1%)을 하회했고, 독일 11월 소비자물가도 전월대비 0.4% 하락하며 시장 컨센서스(-0.1%)를 밑돌았다. 아울러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뉴욕증시 조정과 중국 정부 지원 정책에 따른 중국발 리스크 온 호재가 퇴색하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된 점도 금일 환율 상승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급 상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가 더해지면서 금일 장중 환율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월말 네고물량 유입 등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86.50 ~ 1295.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808.1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85원 ↑
	■ 美 다우지수 : 35430.42, +13.44p(+0.0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4.61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2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